

# 토당귀, 일본 중국당귀에 비해 효과 탁월 데쿠루신 유효성분 뇌손상 치료제로 효능 입증



안딕균 소장  
자생한방병원  
자생생명공학연구소

한방 임상에서 당귀만큼 많이 애용하는 약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이 당귀가 본초학 연구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국것이 다르고 우리것이 다르며 일본것이 서로 달라서 명칭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제각각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단히 모순되고 아이러니컬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서로 상이한 약재를 오늘도 환자들이 치료용으로 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상이한 당귀의 효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고 또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오늘도 효력이 높다고 사용하고 있는 토당귀 즉 참당귀(*Angelica gigas* N.)는 중국이나 일본

당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성분과 약효가 입증되고 있어서 약효상의 우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유효성분으로 보면 중국 당귀는 carvacrol ligustilide angelicide 1-tetradecanol palmitic acid 등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당귀에서는 (angelica-pectin) A ligustilide cnidilide isocnidilide 등이며, 국산당귀에서는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decursin decursinol bergapten decursin-angelate umbelliferon 등으로 밝혀졌다.

약리실험에서 최근 연구된 논문에 의하면 토당귀의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decursin-angelate는 혈관 신생반응(angio genesis)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혈관을 다시 만들어 낸다는 것은 혈관과 혈액을 통한 영양물질의 공급과 함께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에 따른 호르

몬대사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도 재생력을 얻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실험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실험결과들을 가지고 이미 특허를 제출한 상태이다.

요즈음 발표된 결과에서는 decursin 성분이 뇌 속에 들어가서 뇌 안에 독성 물질이라고 알려진 베타 아미로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감소시키므로써 결국 복용자는 뇌세포를 보

호하게 되므로 치매에 예방과 치료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혈액순환과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항산화작용은 물론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기여하므로 뇌기능이 활발하게 유지 되는 것이다.

임상에서 매일 뇌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며 효능을 얻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반응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환자에게 확신을 주고 투여자 스스로가 긍지와 자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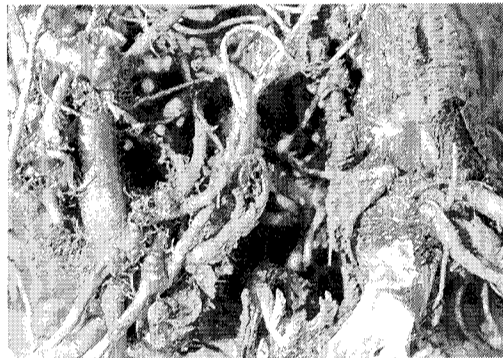
당귀는 보혈·조혈작용 생리조절작용 혈액순환개선뿐만 아니라 뇌질환치료에 현저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뇌기능 개선으로 예방효과를 찾고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래에 활용하던 총명탕(聰明湯)이나 주자독서환(朱子讀書丸) 귀비탕(歸脾湯)에 가미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군약(君約)으로도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처방을 구성한다면 집중력과 건망 기억감퇴 산만하고 해이한 정신력을 응집하기 위함과 사고력 집중력 상상력 추리력 향상을 위하여(IQ 증진) 오미자(五味子) 뇌대사 활성에 유효한 인삼(人蔘) 은행(銀杏)인 원지(遠志) 석창포(石菖蒲) 당귀(當歸)가 배합된다면 매우 신속한 치료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중풍예방과 치료 또는 병증에 따른 환자의 증상개선을 위하여 얼마든지 다른 처방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치료는 의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같이 하는 일이고 일시적 즉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속적인 투여 할 때에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고 치료효과에 대해 서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삼연작장해 원인 찾아 인삼의 조기 낙엽현상이 없어지고 잎과 줄기는 때도 잇고 '파릇파릇'

예전 같으면 7~8월 고온기에 생리장해(일명 노랑병)가 심하게 발생되어 조기낙엽되거나 근부병이 심하게 발생되어 중도 폐포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9~10월이 되어도 잎과 줄기가 생생한 인삼포장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인삼약초연구실이 인삼연작장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덕분이다.

인삼연구팀이 인삼장해원인 규명에 매달린지 8년만의 결실이다. 씹어가는 인삼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아야 했던 인삼농가에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삼관련학회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인삼연작장해원인에 대한 연구노력이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확실한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인삼연구실이 밝혀낸 연작장해 원인은 뿌리썩음병(근부병). 한번 뿌리썩음병이 발생한 인삼포장은 수십 년이 흘

러도 같은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토양훈증제 소독법까지 개발해 냈다.

개발된 토양소독법 기술로 2년 전부터 연작장해경감 시범사업(04년 2ha, 05년 5ha)을 실시해 본 결과 탁월한 효과를 입증 받았다.

인삼재배시 가장 큰 문제점인 뿌리썩음병(근부병)을 완전 제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인삼은 한번 재배한 토지에서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된 뒤에야 다시 인삼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고 실제로 많은 인삼농가들이 연작장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번 농기센터 연구팀의 개가로 인삼재배기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됨은 물론 금산 인삼농가들은 타지경작에 따른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최적의 조건에 양질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 결명자·향기침 두통에 특효

최근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사회생활과 환경 변화 속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신경성 두통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젊은 여성, 사무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 등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활동적으로 일하거나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집중력을 감소시켜 생산성과 학업성적을 떨어뜨리며 또한 후시 머릿속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공포감과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갖고 생활한다.

한의학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초기에는 기혈의 순환장애로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조이는 듯한 통증을 나타내며, 만성화하면 머리가 항상 멍하고 어지러우며 소화기 장애 등의 전신 증상을 호소한다.

가정에서 차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한약재로는 국화, 칩뿌리(갈근), 결명자 등이 있다. 두통과 함께 머리와 눈이 열이 치

솟듯 뜨거워지고 눈이 충혈될 때는 국화가 좋으며, 숙취로 인한 두통과 감기 때문에 열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에는 칩뿌리가 효과적이다. 결명자는 특히 편두통에 좋으며, 눈을 밝게 해 준다.

지압요법으로는 관자놀이, 등 압통점(손가락으로 짚어 제일 아픈 곳)을 손가락으로 10초씩 지속적으로 3회 정도 누르면 효과적이다. 또한 두통에 좋은 향으로는 라벤더, 로즈마리와 박하가 있다.

최근 한방에서는 침 치료에 아로마요법을 결합한 향기침을 사용하는데 아로마를 통해 정신을 이완시키고 안정을 취하면서 침 자극을 통해 인체의 손상된 기(氣)를 회복시키고 순환을 좋게 하여 임상에서 두통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통 환자들은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분별하게 진통제를 복용해 약물유발성 두통이나 만성두통으로 진행돼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통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두통부터 생명에 별 지장이 없는 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 한약재 이용 기능성 발효액 개발

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성호)은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한 농가와 함께 관절염 억제와 고혈압 예방, 숙취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한약재 발효액'을 개발, 특허출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발효액은 우슬과 솔잎, 엉겅퀴뿌리 등에 찹쌀과 누룩 등을 섞어 발효시킨 것으로, 실험결과 항산화성 및 항염성 효과는 물론 고혈압 억제와 관절염 예방, 돌연변이 억제, 숙취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슬 및 솔잎 등에 다량 함유돼 있는 '헥크디손' 성분 등이 세포막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카텝신B'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기 때문이다.